

사노피그룹

환경정화·동물돌봄 등 봉사활동 실시



사노피그룹은 식목일을 앞둔 지난 4일 나무심기, 환경정화, 동물돌봄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메리알코리아 등 국내 사노피그룹 소속 4개사 500여명 임직원은 '사노피 트러스트 액트(Sanofi Trust Ac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노피그룹 직원들은 나누어서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평화습지를 방문해 나무심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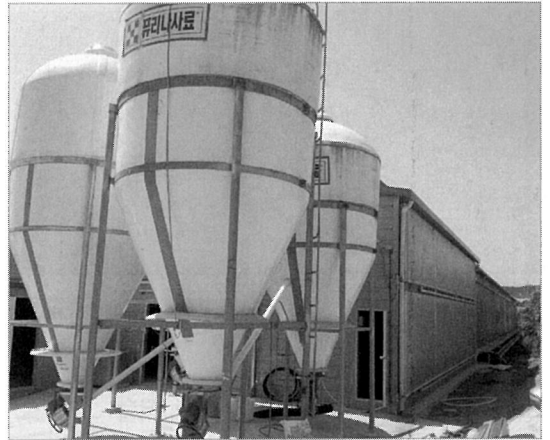
또한 서울시 중랑천 근교에서 약 17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아울러 아름다운가게와 구룡마을 주민에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노피 보따리'를 전달했고,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집수리를 도왔다. 특히 사노피 소속 의사들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방문, 유기견을 돌봤다.

'사노피 트러스트 액트'는 지난해 4월 5일 '사노피 코리아 비전 2020' 선포일을 기념해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보다 건강한 한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건강'과 '환경'이라는 주제 하에 전 직원 참여 자원활동으로 마련됐다.

총 22개 종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전국 15개 도시에서 이뤄졌고, 이를 누적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천 시간에 달한다.

보일공업(주)

한국 기업 최초로 육계케이지 개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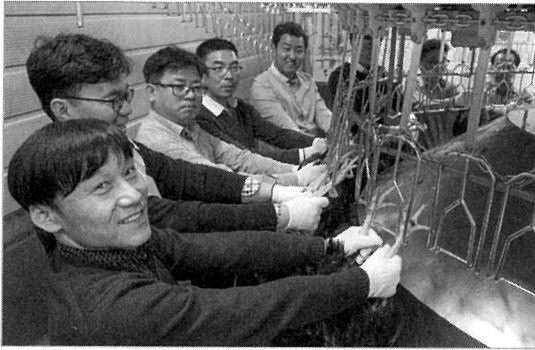
산란계 직립식 케이지 제작 업체로 명성있는 보일공업(주)(대표 김현석)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육계 케이지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보일공업은 지난 1992년 산란계 케이지를 개발 보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육계케이지를 개발, 지난 8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소재한 '산들농장'에 첫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김현석 사장은 "이번에 개발 출시되는 보일의 육계케이지는 서랍식의 빼고 닫는 독립적인 플라스틱 바닥 구조로 되어 있어 닭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 육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P70 '화제집중' 참조).

(주)코리아더커드

새로운 도계 설비 공개, 시도계로 시범운영



국내 오리고기 전문기업 (주)코리아더커드(총괄 회장 박영진)가 신사업을 위한 설비 구축을 완료, 계육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코리아더커드는 지난 3월 27일 계육사업을 위해 재정비한 도계라인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닭을 도축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도축·포장 설비를 운영하는 시도계를 진행했다.

이날 첫 가동에 들어간 도계라인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코리아더커드의 오리가공 라인을 닭가공 라인으로 탈바꿈하면서 설비구축과 확장공사에 약 100억원이 투자되었다. 신설된 도계라인은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최신의 유럽형 설비를 도입하여 닭고기의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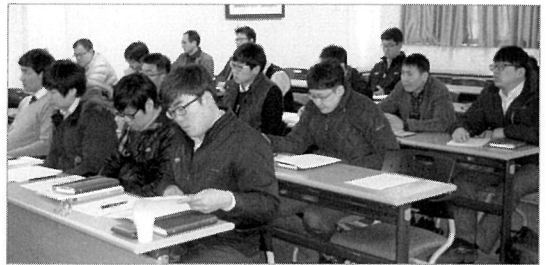
유럽형 설비의 특징은 철저한 위생과 높은 생산성이며, 코리아더커드 남원공장의 닭가공 라인의 생산규모는 시간당 약 12,000수, 1일 약 15만수의 닭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선진기술을 도입

할 계획이다.

남원 공장은 국내 오리업계 최초로 무균설비, 공기정화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로 HACCP인증을 받은 시설로 오리고기 브랜드 '다향오리'를 생산했던 시설이다.

두산생물자원

'프론티어 제도' 실시



두산생물자원 영업부문(부부장 이준호)은 지난 3월 14일 부천공장 본사에서 프론티어 전문가 과정을 실시했다.

올 1월부터 개설한 축종별 전문가 과정 '프론티어 제도'는 제품 및 사양관리, 실증사례 등을 들어 지역별 특징과 이슈를 토론하고, 현장사례를 공유하며 축산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는 마음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제시하며 업계발전의 선두로 향해 발걸을 하고 있다. 